

“안전한 작업환경 조성·‘초격차 경쟁력’ 확보 최선”

고재운 제17대 광양제철소장 취임

‘강건한 설비 관리’ 등 5대 핵심전략 제시
차별화된 기술력 기반 친환경 제품 확대
전 공정 AI 활용 지능형 공장 구축 가속화
성과 공유·기술 개발 활성화로 인재 양성

“내실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 소재 전문 제철소로
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초격차 경쟁력 확보
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”

제17대 광양제철소장으로 취임한 고재운 신임
소장은 8일 “광양제철소는 중국산 철강재의 저가
공세 등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도 도전적인 수익성
방어 노력을 통해 전사적인 수익 창출을 견인해 왔
다”며 ‘안전한 작업환경 구현’과 ‘초격차 경쟁력 확
보’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가
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며 광양제철소의 새 역사를
써 내려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
이를 위해 고 소장은 △실행 중심의 안전 활동 △
강건한 설비 관리를 통한 안정 조업 △초격차 원가
경쟁력 △신뢰 기반의 소통 △지역과 함께하는 상
생 문화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.

고 소장은 그 어떤 가치보다 안전이 최우선시되
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“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
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계통 보
고와 TBM(작업 전 안전점검회의)이 이뤄지고,
작업자가 임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”고 말
했다.

이어 “광양제철소 경쟁력의 근간은 강건한 설비
관리에 따른 안정 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
에 있다”며 “주인 의식, 스마트 예지정비체계 강화,
설비 관리체계 고도화를 기반으로 철저한 점검과
확실한 예방 조치로 강건한 설비 운영을 해야 한
다”고 설명했다.



제17대 광양제철소장으로 취임한 고재운 소장은 ‘안전한 작업환경 구현’과 ‘초격차 경쟁력 확보’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광양제철소 제공

특히 고 소장은 ‘초격차 원가경쟁력’ 확보에 사
활을 걸 예정이다. 광양제철소만의 차별화된 조업
경쟁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초격차 원가경쟁력을
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AHSS(초고장력강판), 자
동차 외판, Hyper No(전기차 모터의 효율을 극대
화하고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제작된 전기
강판) 등 친환경 핵심 제품들의 경쟁력을 강화해
나갈 전략이다.

그는 “광양제철소 주력 제품의 생산규모를 확대
해 미래 전기차 및 친환경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
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고,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
ESG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타 제철소와 차별
화되는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

이와 함께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자
동으로 수집·통합·서비스해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
정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공장 ‘인텔리전트 팩토리’

구축을 가속화할 방침이다.

고 소장은 “전 공정과 공정에 인텔리전트 팩토리
를 확대 적용해 AI 기반의 조업 전환을 가속화해야
한다”며 “지난해 10월 광양제철소가 성공적으로 도
입한 2제강 전로 원터치 조업을 계기로 올해에도
AI와 데이터, 사람을 융합하는 지능형 공장 기술
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”고 전했다.

원터치 조업은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
공정의 전 과정을 단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자동
수행하는 포스코만의 독자개발 기술이다.

또 조업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켜 최적의 전로 열
배합 모델을 구축한 사례와 현장과 동일한 가상의
전로를 컴퓨터로 구현해 시스템 내에서 전로를 통
합 관리 및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자동화
시스템 등을 구축한 사례를 기반으로 타 공정에 자
동화 모델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.

약력

- ▲ 1994 포스코 입사/제강부 연구기술원
- ▲ 2010 제강부 2제강 공장장
- ▲ 2013 철강기획실 선강기술그룹 리더
- ▲ 2015 제강부 연구기술개발섹션 리더
- ▲ 2017 제강부 제강기술개발섹션 리더
- ▲ 2018 PT.KRAKATAU POSCO(인도네시아) 제강부장
- ▲ 2021 포항제철소 제강부장
- ▲ 2023 광양제철소 선강부소장
- ▲ 2025 광양제철소 소장

이밖에도 직원들이 서로 신기술 성과를 공유하
고 우수 기술과제를 시상하는 자리인 ‘광양제철소
Tech-Day’와 설비 경쟁력 유지·발전을 위한 과제
중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‘설비부문 기술경진대회’
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성과 공유와 기술개발
의 장을 활성화해 인재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
이다.

고 소장은 ‘신뢰’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강조하
며 관리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
취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신뢰 관계를 형성해 줄
것을 주문했다.

지역경제 활성화, 교육, 복지 등 주민들에게 실
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
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도
앞장선다는 각오다.

고 소장은 “지역과 함께하는 상생문화가 있었기
에 지난 41년간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세계 최
고의 제철소가 될 수 있었던 만큼 지역민으로부터
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”이라며
“앞으로도 전 임직원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동행하
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”
고 밝혔다.

곽지혜 기자·광양·안영준 기자

↓광양제철소 전경.



고흥군,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실시

실제 경작 농업인 대상

고흥군은 관내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
경감과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목
적 소형농기계를 비롯한 맞춤형 농기계
지원사업을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사무
소에서 신청받는다

신청 자격은 2024년 1월1일 이전에 고
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, 농지를 소
유하거나 임차해 농작물을 실제 경작하는
농업인이다.

지원 품목으로는 제조기, 분무기, 관리
기 등 다목적 소형농기계와 용수로 개폐
장치, 유류 저장탱크(급유기), 편의 의자
등 인력 절감 효과 및 작업 효율성 증대를
위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.

공동농업 실천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
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단체
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는 광역 살포
기, 범용콤바인, 농업용 드론, 지게차, 곡
물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농산물 생산비
절감 지원사업도 신청받고 있다.

신청을 희망하는 농업(법)인이 거주지
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를 제출하
면, 읍면 심의회를 통해 우선 순위자를 추
천하고 고흥군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
책 심의회 농정분과 심의를 거쳐 사업대
상자를 확정한다.

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
및 고흥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
(061-830-5376, 5822)으로 문의하면
된다.

고흥=심정우 기자

여수시, ‘여수문화재단’ 하반기 출범 추진

문화예술 진흥 전담기구 역할 기대 민선 8기 공약·문화거점도시 초석

여수시가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해 추
진하고 있는 ‘여수문화재단’이 올해 안에
출범할 전망이다.

8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예술
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
화를 위한 여수문화재단 출범을 올해 하
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.

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
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해 수행하는 전담기
구로 현 문수동주민센터에 자리할 예정이
다.

재단이 설립되면 예술기획 관련 전문인
력에 의한 운영 등으로 문화정책의 연속

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며, 지역 문화예술
인·단체들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
특화된 문화프로그램 개발, 문화 향유 기
회 확대 등 문화거점도시로 향한 발걸음
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.

특히 생산 563억, 부가가치 303억, 취
업 584명 등의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
분석됨에 따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
가 기대되고 있다.

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‘여수문화재단
설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’를
개최했으며, 지방출자 및 출연기관 타당
성 검토 지정 전문가인 전남연구원을
통해 ‘타당성 검토 용역’을 완료했다. 이
어 지난해 11월 여수시 출자·출연기관 운
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쳤으며, 현

재는 전남도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
회 심의를 앞두고 도와 협의 중이다.

여수시는 전남도 심의가 완료되면 조례
제정, 재단 이사회 구성, 법인 등기 등의
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.

여수문화재단 조직은 △경영지원팀 △
문화예술진흥팀 △축제기획운영팀 △시
설운영팀 등 총 4팀 30명 내외로 구성돼
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
수행할 예정이다.

재단은 여수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
화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, 지역 주요 축
제를 직접 기획·운영·지원할 계획이다. 또
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
정책 방향 논의 등 문화예술정책 R&D사
업에 나섬과 동시에 지역예술가들의 안정
적인 창작활동과 작품 전시·공연 제공 등
예술 활동도 지원한다.

여수=이경기 기자